

대학 교육의 만족도와 전공-일자리 일치도, 전공 지식의 업무 활용도 및 임금과의 관계

- 대학 교육 만족도는 수도권 대학이 지방대학보다, 대학 순위가 높을수록 높음. 특히 수도권 대학(57.3%)은 지방대학(51.5%)보다 전공 교수진의 능력 및 열의 측면에서 만족도가 더 높고, 상위권 대학(49.0%)은 하위권 대학(38.6%)보다 전공 커리큘럼 및 교육 내용에서 만족도가 10.4%p 더 높음.
- 만족스러운 전공 교육을 받은 대졸자는 전공-일자리 미스매치 비율이 낮게 나타남. 특히 전공 커리큘럼 및 교육 내용에 만족하는 대졸자의 전공-일자리 미스매치 비율은 20.3%로, 불만족하는 대졸자(38.3%)에 비해 18.0%p 낮음.
- 만족스러운 대학 교육을 받은 대졸자는 불만족스러운 경우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음. 특히 1~30위권 대학 졸업자 중 전공 커리큘럼 및 내용에 만족하는 경우, 월평균 임금이 251만 6천 원으로 불만족하는 대졸자 224만 2천 원보다 27만 4천 원 더 높음. 61위 이하 대학 졸업자는 진로 지원에 만족하는 경우(199만 8천 원)가 불만족하는 경우(184만 9천 원)보다 14만 9천 원 더 받음.

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

| 대학 교육의 질과 유용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.

- 최근 대졸자의 취업난과 일자리의 질 문제로 대학 교육의 유용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음.
 - 교육 내용과 교수 방법 등이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변화하기보다는 과거 방식을 답습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학생들의 불만이 있음¹⁾.
 - 대학생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전공 커리큘럼과 수업방식, 불충분한 진로지원으로 인해 졸업 후 자신의 전공을 활용할 수 있는 진로를 모색하는 데 어려움을 느낌¹⁾.
-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과 적응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것은 청년 고용 문제 개선과 대학 교육의 유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.
- 이 글은 대졸자의 전공 교육 및 진로 지원 제도의 만족도를 분석하여, 대학 교육의 질이 대졸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.

| 분석 자료: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취업이동경로조사(2012GOMS)

- 분석 자료: 한국고용정보원의 2012 대졸자취업이동경로조사(2012GOMS)
 - 모집단은 2011년 8월과 2012년 2월에 졸업한 2년제 및 4년제 대학 졸업생이며, 조사 시점은 이들이 대학을 졸업한지 약 18개월 뒤인 2013년 9월임.
- 분석 대상: 4년제 대졸자 12,272명을 분석하였으며,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중치를 사용함.
- 분석 문항: '전공 교수진의 능력 및 열의', '전공 커리큘럼 및 내용', '수업 방식 및 질', '진로관련 상담 및 지원 제도'에 대한 만족도 문항

| 각주 |

1) 오호영 외(2014). 인문계 실태 및 취창업 교육지원 방안. 한국 직업능력개발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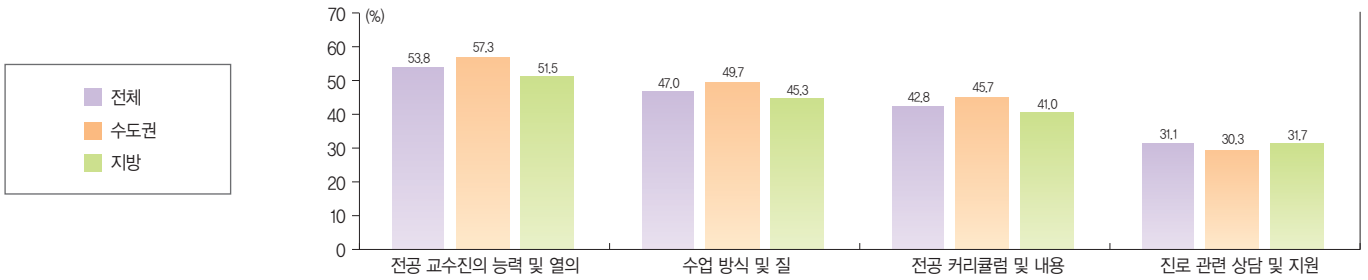


- 만족도는 5점 척도(① 매우 불만족, ② 불만족, ③ 보통, ④ 만족, ⑤ 매우 만족)으로 측정됨.
- 이 글에서는 편의상 '④ 만족'과 '⑤ 매우 만족'에 응답한 경우는 '만족', '① 매우 불만족', '② 불만족'으로 응답한 경우는 '불만족'으로 범주화하여 분석

02 대학 특성 및 전공계열별 대학 교육 만족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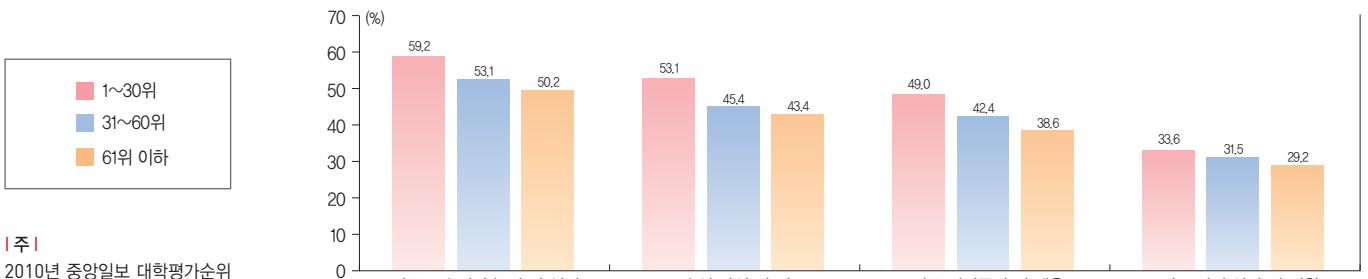
| 상위권 대학에 비해 하위권 대학의 교육 만족도가 크게 떨어짐.

- 4년제 대졸자 중 전공 교수진의 능력 및 열의에 만족하는 비율은 53.8%, 수업 방식과 질에 만족하는 비율은 47.0%, 전공 커리큘럼과 내용은 42.8%, 진로 관련 상담 및 지원 제도에 만족하는 비율은 31.1%임.
- 대학 소재지별로는 전공 교수진의 능력 및 열의에 만족하는 수도권 대학 졸업자가 57.3%로, 지방대학 졸업자(51.5%)보다 교수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.
 - 수업 방식과 질도 수도권 대학 졸업자는 49.7%가 만족하는 반면, 지방대학 졸업자는 45.3%가 만족하여 지방대학의 수업 방식과 질에 대한 만족도가 약간 떨어짐.
 - 전공 커리큘럼과 내용에 대한 만족도도 수도권 대학 졸업자(45.7%)가 지방대학 졸업자(41.0%)보다 높음.



[그림 1] 대학 소재지별 대학 교육 만족 비율

- 대학 순위별로 살펴보면, 전공 커리큘럼 및 내용에 만족하는 비율은 1~30위 대학 졸업자가 49.0%, 61위 이하 대학 졸업자는 38.6%로 대학 순위별 격차(10.4%p)가 가장 큼.
 - 전공 교수진의 능력 및 열의에 만족하는 비율은 1~30위는 59.2%, 31~60위는 53.1%, 61위 이하는 50.2%로, 최대 9.0%p 차이 남.
 - 수업 방식 및 질에 만족하는 비율은 1~30위는 53.1%, 31~60위는 45.4%, 61위 이하는 43.4%로 1~30위 대학과 61위 이하 대학 간에 9.7%p 차이 남.



[그림 2] 대학 순위별 대학 교육 만족 비율

| 주 |
2010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순위 사용

| 대학 교육 만족 비율은 교육계열이 가장 높고, 예체능계열은 가장 낮음.

- 전공 교수진의 능력 및 열의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전공계열은 교육계열(61.6%)이며, 그 다음으로 공학계열(57.8%), 의약계열(56.5%), 인문계열(55.6%), 사회계열(53.0%)와 이학계열(53.0%), 경상계열(49.3%), 예체능계열(46.1%) 순임.
 - 수업 방식 및 질에 대한 만족도는 교육계열(55.3%)이 가장 높고 그 뒤로 의약계열(49.8%), 공학계열

- (49.1%), 인문계열(49.0%), 이학계열(46.3%), 사회계열(45.9%), 경상계열(44.6%), 예체능계열(40.7%)임.
- 전공 커리큘럼 및 내용에 대한 만족도 또한 교육계열(53.3%)이 가장 높고, 의약계열(45.6%), 공학계열(44.3%), 인문계열(43.3%), 사회계열(42.2%), 경상계열(41.5%), 이학계열(41.3%), 예체능계열(37.4%) 순임.
- 진로 관련 상담 및 지원 제도에 대한 예체능계열 졸업자의 만족 비율은 15.0%로 나타나 상당히 낮음.

〈표 1〉 전공계열별 대학 교육 만족 비율

(단위: %)

	교육계열	공학계열	의약계열	인문계열	사회계열	이학계열	경상계열	예체능계열
전공 교수진의 능력 및 열의	61.6	57.8	56.5	55.6	53.0	53.0	49.3	46.1
수업 방식 및 질	55.3	49.1	49.8	49.0	45.9	46.3	44.6	40.7
전공 커리큘럼 및 내용	53.3	44.3	45.6	43.3	42.2	41.3	41.5	37.4
진로 관련 상담 및 지원	23.7	24.1	18.3	21.9	23.2	21.5	22.0	15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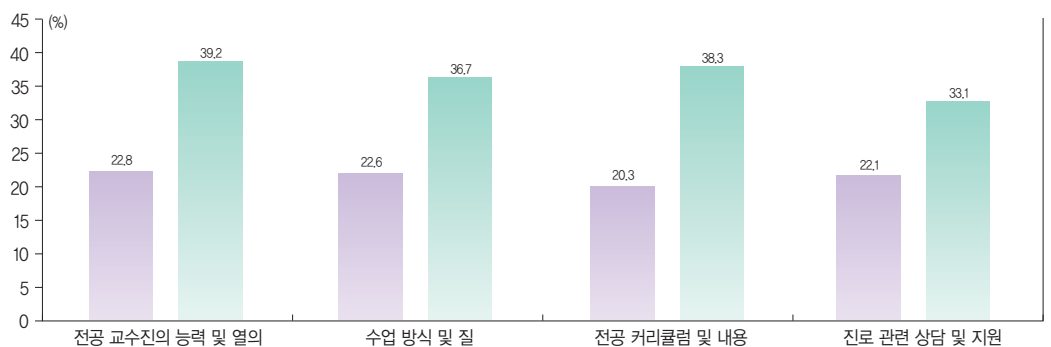
03 대학 교육 만족도에 따른 취업의 질과 전공 지식의 업무 활용도

만족스러운 전공 교육을 받은 대졸자는 전공-일자리 미스매치 비율이 낮고 전공 지식의 업무 활용도도 높음.

- 대학 교육 만족도에 따른 고용률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나, 61위 이하 하위권 대학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졸업자가 만족도가 낮은 졸업자에 비해 다소 높음.
- 전공 커리큘럼 및 교육 내용에 만족하는 대졸자의 전공-일자리 미스매치 비율은 20.3%로 가장 낮으며, 불만족한 대졸자의 미스매치 비율인 38.3%보다 18.0%p 더 낮음.
 - 전공 교수진의 능력과 열의에 만족하는 대졸자는 전공-일자리 미스매치 비율이 22.8%로, 불만족하는 졸업자 39.2%보다 16.4%p 낮음.
 - 수업 방식 및 질에 만족하는 대졸자는 전공-일자리 미스매치 비율이 22.6%로, 불만족하는 졸업자 36.7%보다 14.1%p 낮음.
 - 진로 상담 및 지원 제도에 만족하는 대졸자는 전공-일자리 미스매치 비율이 22.1%로, 불만족하는 졸업자 33.1% 보다 11.0%p 낮음.



주 | '현재 일자리에서 하고 계시는 일의 내용이 자신의 전공과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?'는 문항(5점 척도)에 '전혀 맞지 않는다'와 '잘 맞지 않는다'로 응답한 비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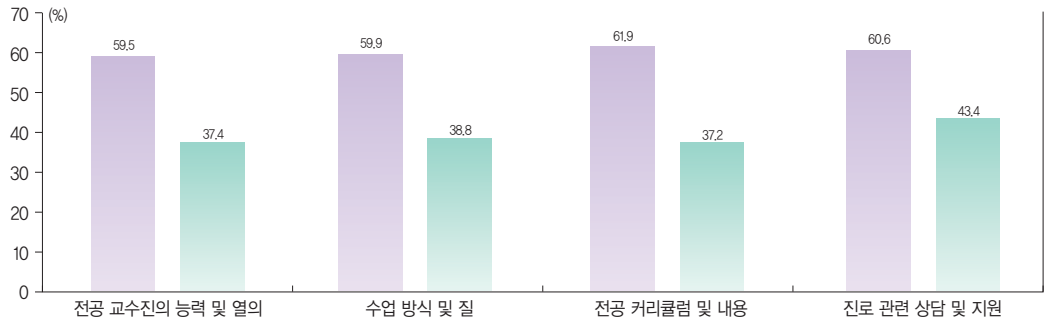


〈그림 3〉 대학 교육 만족도별 전공-일자리 미스매치 비율

- 전공 커리큘럼 및 내용에 만족하는 대졸자 중 전공 지식이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61.9%로, 교육과정과 내용의 질이 전공 지식의 업무 활용도에 매우 중요함을 시사
 - 진로 관련 상담 및 지원 제도에 만족하는 대졸자의 60.6%가 전공 지식이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나, 불만족하는 대졸자는 43.4%로 17.2%p 낮음.
 - 수업 방식과 질에 만족하는 대졸자는 전공 지식이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59.9%이나 불만족하는 대졸자는 38.8%로 21.1%p 더 낮음.
 - 전공 교수진의 능력과 열의에 만족하는 대졸자의 59.5%가 전공 지식이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, 불만족하는 대졸자는 37.4%로 22.1%p 낮음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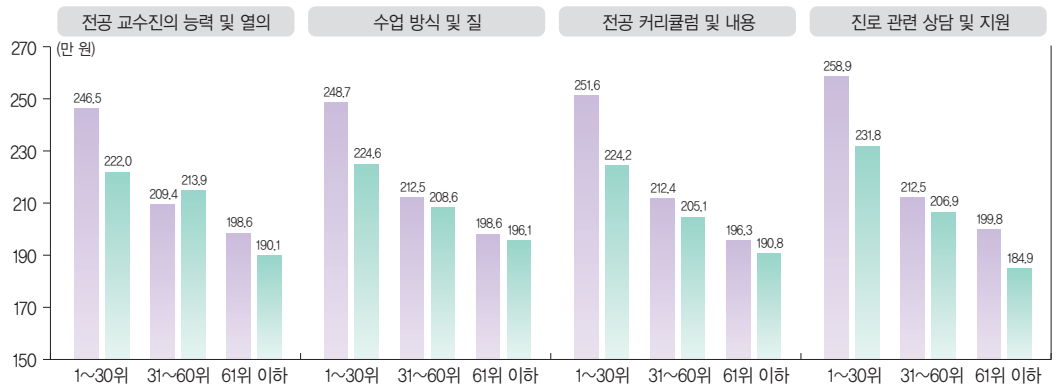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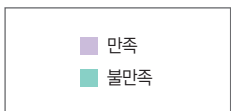
주
 '대학에서 배운 전공지식이 현 직장(일자리)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?'는 문항(5점 척도)에 '대체로 도움이 된다'와 '매우 도움이 된다'로 응답한 비율



[그림 4] 대학 교육 만족도별 전공지식의 업무 활용도

만족스러운 대학 교육을 받은 대졸자의 월평균 임금이 더 높음.

- 만족스러운 전공 교육과 진로 지원을 받은 대졸자의 월평균 임금이 더 높으며, 특히 1~30위권 대학에서는 대학 교육 만족도별 임금 격차가 큼.
 - 61위 이하 하위권 대학 졸업자도 만족스러운 대학 교육을 받은 경우 불만족스러운 대학 교육을 받은 경우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음.
- 1~30위 대학 졸업자 중 전공 커리큘럼 및 내용에 만족하는 대졸자의 월평균 임금은 251만 6천 원으로, 불만족하는 대졸자 224만 2천 원보다 27만 4천 원 더 높음.
- 1~30위 대학 졸업자 중 만족스러운 진로 관련 상담 및 지원을 받은 경우의 월평균 임금은 258만 9천 원 인 반면, 불만족스러운 진로 상담과 지원을 받은 졸업자는 231만 8천 원으로 27만 1천 원 차이 남.
 - 61위 이하 대학 졸업자 중 진로 관련 상담 및 지원에 만족하는 경우의 월평균 임금은 199만 8천 원으로 불만족하는 대졸자 184만 9천 원보다 14만 9천 원을 더 받음.



[그림 5] 대학 교육 만족도별 월평균 임금

04 시사점

- 질 높은 대학 교육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며, 대학 졸업 후 전공지식의 업무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요함.
 - 이는 진로 교육과 함께 질 높은 전공 커리큘럼 구성과 효과적인 교수 방식, 전공 교수진의 능력과 열정이 중요함을 시사
 - 대학에서는 전공 커리큘럼과 교육 내용을 사회 변화에 따라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노력이 필요하며, 대학 교수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이 필요
- 전공 교육의 질이 지역 및 대학 순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지방대학과 하위권 대학이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

이은혜 (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)